“볼보이 태업 사실상 묵인” 강원에 제재금 3000만원

2021시즌 K리그의 마지막 명승부에 ‘옥에 티’를 남긴 강원FC 볼보이들의 시간지연행위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2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12일 강원-대전하나시티즌의 ‘하나원큐 K리그 2021’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 도중 지연행위를 한 강원 볼보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상벌위는 관리 책임이 있는 강원 구단에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하며 “볼보이들의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점 등 구단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원정팬의 페트병 투척으로 이날 상벌위로 함께 회부된 대전하나에는 제재금 200만 원이 부과됐다.

강원 18세 이하(U-18) 유스팀인 강릉제일고 축구부 선수들이 해당 경기의 볼보이로 나섰다. 3-1 리드를 잡은 뒤부터 상대에게 공을 내주지 않거나 엉뚱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등 고의 경기지연행위가 반복됐다. 이민성 대전하나 감독과 코치진은 강하게 항의했고, 원정팬들은 페트병을 그라운드로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결국 최윤겸 경기감독관은 볼보이 교체를 지시했고, 경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초 볼보이의 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시즌 개막 전 볼보이 관련 수칙이 포함된 홈경기 운영 매뉴얼이 각 구단에 배포됐을 때도 징계 관련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강릉제일고 선수들의 동업자정신 결여 등을 고려해 징계가 결정됐다.

대전하나는 상벌위에 앞서 공식 성명을 통해 “당 구단의 책임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해당 상황을 야기하고 근본 원인을 제공한 홈 구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택시기사 폭행한 올림픽 金 신재환 폭행 혐의 적용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2020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3·제천시청)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2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신재환에게 폭행 혐의가 아닌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신재환은 15일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의 도시철도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를 묻는 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9일 소환조사를 마쳤고, 신재환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조협회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7일 신재환에 대한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 추천을 취소했다.

김서영,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개인혼영200m 8위

김서영(27)이 20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에티하드 아레나에서 열린 2021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25m)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선에서 2분09초94로 8위를 기록했다. 시드니 피크렘(캐나다)이 2분04초29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개인혼영 200m는 접영~배영~평영~자유형을 50m씩 나눠서 겨루는 종목이다. 김서영은 접영과 배영을 치른 100m까지는 59초47로 선전했지만, 평영에서 밀려나며 8명 중 8위에 그쳤다. 그러나 남녀를 통틀어 한국선수가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개인혼영 결선에 오른 것은 김서영이 최초라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방송가·OTT 연애 예능 광풍’ 1면에서 이어집니다

●비연예인 출연자 검증이 관건

인기만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나는 솔로’는 한 남성 출연자가 자신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성 출연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다. 해당 여성 출연자가 방송 이후 개인 SNS를 통해 “상담·약물 치료를 받을 만큼 버티기 힘든 경험이었다”고 밝혀 파장이 커졌다. 제작진은 “논란이 된 남성 출연자의 분량을 점차 덜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 방송관계자는 “비연예인 출연자들을 수차례 심층 인터뷰하는 등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노력하지만 한계가 따른다”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고, 관찰 예능 소재 콘텐츠의 특성상 출연자들을 통제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KGC에 1점차 승리…올시즌 최고의 역전드라마

가스공사, 21점차 ‘역대급 뒤집기쇼’

니콜슨 부상…경기전부터 전력 열세
4Q 극적 역전…막판 다시 리드 내줘
알렉산더, 경기 종료 직전 결승팁인
가스공사 12승12패 ‘단독 4위’ 점프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극적인 역전 승리를 거뒀다.

가스공사는 21일 안양 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3라운드 안양 KGC와 원정경기에서 경기 종료 0.6초를 남기고 터진 클리프 알렉산더(24점·22리바운드)의 결승 팁인을 앞세워 85-84로 신승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승리로 12승12패를 기록, 단독 4위로 뛰어 올랐다. 반면 KGC는 연승 행진이 ‘4’에서 멈췄고 14승10패에 머물러 2위 서울 SK(16승7패) 추격에 제동이 걸렸다.

가스공사는 경기 전부터 열세에 놓여 있었다. 외국인선수 앤드류 니콜슨이 허리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에 반해 KGC는 오말리 스펠맨과 대릴 먼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었다.

가스공사는 1쿼터에 두경민, 김낙현으로 이어지는 가드 라인이 박지훈, 우동현 등 KGC 백업들의 거친 수비에 가로막혀 공격을 어렵게 풀어갔다. 설상가상으로 KGC는 외곽포가 6개나 터져 1쿼터를 19-24로 마쳤다.

KGC는 2쿼터에도 흐름을 주도했다. 스펠맨, 전성현, 변준형이 3점슛 4개를 합작했고 오세근도 골밑에서 7점을 올리며 좋은 기세를 이어간 KGC는 3쿼터 중반이 넘어 점수 차를 21점까지 벌렸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3쿼터 종료를 앞두고 KGC의 외곽포가 흔들리며 가스공사가 추격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알렉산더와 이대헌(19점·11리바운드)의 득점포가 3쿼터부터 살아나며 공세를 더 올렸다. 김낙현(19점·4어시스트), 조상열(12점)의 3점포가 한 방씩 터져준 것도 추격에 큰 힘이 됐다.

가스공사는 60-73으로 뒤진 채 4쿼터를 시작했으나 알렉산더와 이대헌의 연속 득점, 조상열과 전현우의 3점슛까지 연이어 터져 빠르게 점수를 좁혔고 급기야 역전에 성공했다.

4쿼터 막판 스펠맨에게 덩크슛을 허용하며 83-84로 다시 뒤졌으나 가스공사는 알렉산더가 경기 종료 0.6초를 앞두고 극적인 결승 팁인을 성공시켜 최종 85-84로 승리했다. 21점 차를 뒤집으며 올 시즌 최고의 역전 드라마를 써냈다.

안양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가스공사의 외국인선수 클리프 알렉산더가 21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KGC와 남자프로농구 3라운드 원정경기가 짜릿한 역전승으로 끝나자 코트를 달리며 환호하고 있다. 알렉산더는 경기 종료 0.6초를 남기고 결승 팁인을 성공시켜 1점차 승리를 이끌었다.
안양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이병근 감독 결별 대구, 11월부터 새 감독 ‘찜’

브라질 출신 가마 감독과 2년 합의
조광래 대표와 한때 감독·코치 호흡
발표만 남아…1월 전훈부터 지휘

K리그1(1부) 대구FC가 새 사령탑을 찾았다. ‘지한파’ 알렉산더 가마 감독(53·브라질)이다.

K리그 핵심 관계자는 21일 “대구가 가마 감독과 동행을 결정했다. 대부분 합의를 마친 가운데 계약 절차도 마무리됐다. 공식 발표만 남은 단계”라고 전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다.

현재 태국에 머물고 있는 가마 감독은 조만간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선수단은 내년 1월 초 경남 남해에서 진행될 동계전지훈련부터 이끌게 된다.

이병근 감독과 결별한 대구FC가 신임 사령탑으로 브라질 출신 ‘지한파’ 가마 감독의 선임을 결정했다. 구단은 조광래 대표이사와 경남FC, 국가대표팀에서 감독-코치로 호흡을 맞췄던 가마 감독의 선임을 일찌감치 염두에 두고 있었다. 스포츠동아DB

물론 전격적 결정은 아니다. 가마 감독이 부임할 것이란 소문이 11월부터 꾸준히 흘러나왔다. 축구계에선 올 시즌을 책임진 이병근 감독(48)과 대구의 동행이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왔다.

대구 수석코치를 거친 이 감독은 2020시즌을 감독대행으로 보낸 뒤 지난해 11월 정식 사령탑으로 취임하면서 1년 계약을 했다. 조광래 대구 대표이사와 이 감독이 20일 만난 뒤 결별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됐으나, 구단 내부적으로는 이미 재계약에 부정적 입장이었다는 정황이 꾸준히 포착됐다.

실제로 대구는 2021시즌을 진행하는 동시에 새 사령탑을 물색해왔고, 가마 감독과 다시 연결됐다. 가마 감독은 조 대표가 K리그 경남FC와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을 때 코치로 인연을 맺었던 낯설지 않은 인물이다. 전임 감독과 결별, 신임 감독 선임이 불과 하루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무앙통 유나이티드, 부리람 유나이티드 등 태국 주요 클럽들을 지휘한 가마 감독은 지난해 안드레 전 감독이 대구를 떠날 당시에도 사령탑 후보에 올랐고, 대구는 이 감독과 공동 사령탑 체제까지 고민한 바 있다.

이제 대구는 묵직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고도 사령탑 교체를 단행한 만큼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이 한층 더 커졌다. 대구는 올 시즌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를 계속 위협하며 K리그1을 3위로 마쳤고, FA컵에선 준우승을 차지했다. 적잖은 성과임에도 만족하지 않은 것이다. “항상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확실하게 정착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가마 감독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욕설·비하’ 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올림픽행 무산 위기

징계 수용땐 2월4일 개막 올림픽 불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거나
상급기관 체육회에 재심 청구 할수도

동료를 향한 욕설 및 비하로 물의를 일으킨 여자쇼트트랙 간판스타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즉각 발효된다. 심석희가 이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2월4일 개막할 올림픽 출전은 불발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심석희와 조항민 코치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이 올해 10월 공개된 것이 사태의 시작점이었다. 연맹은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진천선수촌에서 강화훈련 중이던 심석희를 퇴촌 조치하고, 2021~2022시즌 월드컵 1~4차 대회 출전 명단에서도 제외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2차례 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조사위는 심석희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욕설 및 동료 비하 사실은 확인했지만 또 다른 의혹인 최민정(23·성남시청)과의 고의충돌, 불법도청, 승부조작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결국 심석희의 징계 안건은 ‘선수와 코치에 대한 욕설 및 비하’였다. 사안의 특성상, 징계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법리적 해석을 요구한 공정위원들도 있었고, “올림픽 출전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김성철 연맹 공정위원장은 “조사위에서 심석희가 욕설 및 비하에 대해 인정했고, 사안이 공론화됐기에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림픽 출전 문제는 철저히 배제하고 생각했다. 심석희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일단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심석희 측이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이번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연맹의 손을 떠났다는 의미다.

내년 1월 14일 예정된 체육회 공정위는 올림픽 최종엔트리 등록 마감시한(1월 24일) 열흘 전 열린다. 이에 따라 체육계는 심석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체육회 공정위에서 연맹 공정위 결정을 뒤집고,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리거나 법원에서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수의 올림픽 출전은 가능해진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코치와 부적절한 내용의 모바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킨 여자쇼트트랙 간판스타 심석희가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인터뷰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